음주운전 반성문

이　　름 : 변　동　민
주 민 등 록 번 호 : 860709 - 1241626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57길 8-7(리움 602호)
전 화 번 호 : 010 - 7320 - 3178

내용

2021년 12월 20일 17:00부터 직장동료 4명과 같이 회식을 하였습니다.

회식에 나가기 앞서 차를 운전하면 안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차키를
숙소(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사촌1길 21, 신안원룸)에 두고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장소까지는 걸어서 약 30분 가량 이동하여
반값소(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177-2)라는 곳에서 하였습니다.

제가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있어서 그동안에 술을 못 먹었기 때문에 제 주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초과하여 마셔서 회식 중간에 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기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사고현장인 안성경찰서 회전교차로 사거리 경계석을
받은 후였습니다.

사고 당시의 시간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용지를 참고하면 22시 30분 이후로 추정됩니다.
숙소로부터 사고현장까지의 거리는 약 20km 이고 저는 이곳에 연고도 없고 지인도 없습니다.

사고 후의 기억은 경찰관에게 호흡을 통한 음주 측정을 하였으며 측정 전에는 물로 가글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치는 0.1840% 나왔으며 그 후에는 제 차가 견인되고 저는 택시를 이용해
숙소로 복귀하였습니다.

다음날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왔고 조퇴 후 안성경찰서를 택시를 타고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은 후 경계석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에 접수하였습니다.

저는 운전면허는 2011년에 1종보통 취득을 하였고 후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법인차량을
운전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현재 근무하는 곳으로 이직을 하면서 제 차량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는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직 전 근무하는 회사에서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었는데 내용은 관악구 내에 독거노인을 위한 전기 안전 점검이였습니다. 그 후에 관악구청정에게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현재 저의 직업은 공장의 전기안전관리자로써 공장 내의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숙소와 공장의 거리는 약 500m 정도이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이므로 운전은 필수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아버지는 2년 전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는 포천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시고 동생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매주 금요일 어머니가 동대문에 옷을 구매하러 가시면 저는 퇴근 후에 숙소에서 19시에 운전을 해서 동대문으로 갑니다.

그러면 동대문에 도착시 22시쯤 되는데 거기서 약 한시간 정도 더 있다가 다시 포천 옷가게로 운전을 해서 간 후 물건을 가게에 내려놓고 저의 **집(서울시 중랑구 면목로57길 8-7, 리움)**으로 오게 되면 새벽 2시경이 됩니다.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행정처분처럼 2년동안 운전을 못하게 되면 어머니의 생계가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은행권에 대출이 있고 금액은 약 6천만원입니다.
운전을 못하게 되면 저 또한 생계가 어려워 질 것입니다. 참고로 동생은 면허 취득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초보운전자이고 보유중인 차량은 없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 술 인 : 변 동 민 (인)